

생태여성운동으로 살펴본 기후위기 대응방안¹⁾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장윤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연구본부 연구위원)

들어가며

기후위기와 성평등: 성평등한 정의로운 사회로의 전환

- ✓ 전지구적이면서 지역적인 기후위기는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 및 부정의와 얽혀 부정적 상승작용을 하면서 사회적 취약성이 악화됨.
- ✓ 여성의 기후위기 취약성(vulnerability)은 본질적이기보다 사회구조적인 것으로, 젠더 포괄적인(gender responsive) 기후위기 정책 대응 없이는 여성의 기후위기에 따른 악영향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폭염, 폭우, 가뭄, 산불 등의 자연재난과 전염병, 화재 등의 사회재난은 가속화된 기후위기의 현실 앞에서 미래에 대한 계획과 상상력을 협소하게 하지만, 탈탄소사회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공생을 위한 조각을 맞춰나가야 하는 기나긴 여정임.
- ✓ 이에 다양한 차원에서 에코페미니즘이 제기해 온 논의와 지역에 기반한 생태여성운동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성평등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한국의 생태여성운동 실천 사례 1. 기후위기 대응활동

● 국내 기후위기 운동 내 성평등 반영 현황

-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후위기행진) 2019년 9월 21일 전국 13개의 도시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위기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에서 약 7천 500명이 모임 > (기후위기비상행동) 각계의 시민사회운동단체와 개인들이 모여 '기후위기비상행동'이라는 이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대체 조직. 참여단체는 환경, 인권, 노동, 종교, 여성, 동물권,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170여개의 단체와 개인들이 참여, 국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압박과 구체적인 계획, 실행 등의 전반적인 논의 진행 > (기후위기 비상선언) 2020년 6월, 전국 225개의 기초지방정부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 참여 >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2020년 9월,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채택 ▶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의 성평등 의제 확대 미진

1) 본 원고는 아래 연구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발췌 및 정리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장윤선·김둘순·윤지소·김선아·이성준·박현정·이안소영·김은희·채혜원·서연화(2024), 『미래사회 성평등 정책의 도전과제(III):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환경연대

기후위기 대응과 성평등 의제의 교차적 운동 추진, 주요 활동으로는 1) 2021년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기후위기의 피해와 감축에 대한 정책제안을 마련하여 <여성X기후위기: 여성이 말하는 기후위기 정책제안> 발간²⁾, 2) 2023년 국내 여성운동단체들과 함께 <페미니스트 기후정의 선언> 발표³⁾ 등이 있음

- 이외 주요 기후정의 행동단체: YWCA(탈핵운동), 셰어(SHARE,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한국여성민우회(기후위기 대응 회원소모임, 캠페인) 등

- 기후위기 대응운동 실천사례: 정치하는엄마들(기후소송, 양육자라는 아이들의 고통의 대변자이자 미래 피해에 고민하는 위치),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기후위기 문제를 고민하고 예술적 실천하는 모임, 전시·퍼포먼스·포에트리 슬램(poetry slam) 등 시도)
- 시사점: 기후대응에서 여성의 참여 보장, 기후위기 대응의 젠더관점이 교차하는 의제 발굴, 기후정의 운동의 다양성 확보

한국의 생태여성운동 실천 사례 2. 여성 농어업인 운동

● 여성 농업인 운동

- 농생태학 실천을 통해 땅과 토종씨앗, 토착화된 농사지식 지키고, 여성농민이 처한 불평등한 현실과 차별적 지위 개선 위한 운동 전개. 대안적인 소비 유통망 통해 사회적 지지와 참여의 폭 확대
- 주요 단체: 언니네텃밭(여성 소농공동체를 기반으로 다품종 소량생산의 가치 지향, 생태농업 방식과 토종씨앗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꾸러미 형태로 배송) 가배울(토종 농사와 식문화를 중심으로 식문화 공동체, 공동체 문화예술이 살아 있는 마을 만들기, 맛 문화 답사 등 진행), 농부시장 마르쉐@ (유기농 농산물과 다양한 식료품, 수공예품을 사고팔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경험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장)

● 콩쥐와 파치

- 제주도에서 규격 농산물 외에 못난이 농산물(파치, 농산물의 위계화 배제)의 유통과 인식 개선 활동
- 씨앗과 농민과 파치를 주제로 한 전시 프로젝트, 제주 토박이콩에 대한 소책자 제작과 교육활동 진행
- 시사점: 유기농 다품종소량생산농의 생태농업과 토종농사 지속을 위한 대중교통망 지원, 파치 농산물 판로지원과 인식개선, 고령 1인가구 여성농민을 위한 현실적 농기계 지원방안

2) 여성환경연대에서 발간한 <여성X기후위기: 여성이 말하는 기후위기 정책제안>은 ▲ 여성 농민이 말하는 정책제안: 논밭에서 식탁까지, ▲ 풀뿌리 활동가가 말하는 정책제안: 여성이 바꾸는 지역사회, ▲ 젠더관점에서 본 기후재난 대응정책 제언: 성평등한 기후재난 적응대책, ▲ 돌봄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제언: 모두를 위한 돌봄 등 4개 대주제로 구성됨(출처: <https://www.ecofem.or.kr/60/?idx=8415131&bmode=view>)

3) 탈성장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하라. 2.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라. 3. 기후대응 정책 전반에서 젠더관점을 반영하라. 4. 여성·지역민 등 사회적 소수자가 주체가 되는 탈중앙집권적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하라. 5. 젠더 관점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한다. 6. 인간과 비인간 동물 모두가 공존하는 중평등한 사회로 전환하라. 7. 핵발전, 석탄발전 계획을 폐기하고 근본적인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하라. 8. 주거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라. 9. 여성 농민·농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식량주권을 확보하라. 10.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이행하라. (출처: <https://www.ecofem.or.kr/83/?idx=124752495&bmode=view>)

- 여성 어업인 운동: 제주 월정리해녀

- 수온상승, 해양쓰레기 및 해양오염 등으로 해녀들의 건강권 악화, 미역·다시마·전복 등 해산물 수확량 축소 등으로 생계 위협
- 어촌계 등 지역정책 거버넌스에서의 낮은 여성 대표성으로 인해 정책의 의사결정에 여성의 요구가 반영되기 어려움
- 시사점: 해녀 현실을 반영한 기후위기와 하수도처리장 증설에 따른 지원방안, 성평등공동체 문화 조성과의 의사결정구조의 여성 참여와 대표성 강화, (관광객 전시행정 아닌)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사회기반 시설 구축

한국의 생태여성운동 실천 사례 3. 제로웨이스트 운동

- 제로웨이스트란 제품, 포장재 및 원료를 책임지고 태우지 않고, 토양, 물 또는 대기로 배출하지 않으며, 환경이나 인간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 책임 있는 생산, 소비, 재사용 및 회수를 통해 모든 자원을 보존하는 것임(ZWIA, 2018)

- 기후위기를 초래한 과생산·과소비·과폐기에 대응하여 폐기물 없는 사회를 위한 활동을 전개
- 주요 단체: 자원순환사회연대(KWMN), 녹색연합(녹색사회팀), 환경운동연합(자원순환팀)과 서울환경연합(자원순환팀), 여성환경연대(기후정의팀-유해물질/플라스틱), 알맹상점(공간 거점 리필스테이션), 피프프리미(온라인 플랫폼)

- 제로웨이스트샵 1.5°C

- 제로웨이스트 운동을 확산하는 생활밀착형 매장으로 마을에서 대안적 삶의 감각을 기르는 거점 역할 수행(1인 소상공인 자영업 형태)
- 주요 고객은 대부분 여성이나 리필스테이션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남성 고객의 관심과 이용 확대, 닫힌 도시에서 열린도시로의 교류의 장 지향

- 다시입다연구소

- 의류 쓰레기 문제를 수선문화로 접근한 비영리 스타트업으로 수선문화 활동 확산, “힙한 수선으로 지구를 지키자!” 슬로건 제시
- 국내 최초로 2024년에 ‘1019 전국 수선의 날’ 개최,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배출 저감 정책제안, 패션 재고 폐기(소각) 반대운동 전개
- 활동 참여자 대부분 2030 세대로 여성들의 참여와 공감 확인 > 에코페미니즘 가치 확산

- 시사점: 정부 폐기물 관리 정책의 젠더 관점 통합,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배출 저감필터 설치 의무화,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제로웨이스트샵 맞춤형 지원

한국의 생태여성운동 실천 사례 4. 마을·공동체 운동

● 마을·공동체 내 여성들의 기후위기 대응

- 기후위기 시대에서 생태적이고 지역 순환적인 공동체 경제와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에서의 공동체적 돌봄 실천
- 주요 단체: 수락(퍼머컬처(Permaculture) 실천 모임), 지리산방랑단(산악열차 사업, 공장단지 확장 사업, 댐 건설 사업 등의 난개발, 사라진 숲과 마을 취재 활동 등), 문화기획달(지역 독립계간지 지글스(지리산에서 글 쓰는 여자들) 창간 후 16회 발간, 살롱드마고 운영, 산내페친 등 젠더×문화모임 개최)

● 은평전환마을

-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 부정의의 대안으로 등장, 전환네트워크(Transition Network) 운동은 2006년 영국의 작은 시골마을 토트네스(Totnes)에서 시작됨
- 한국에서는 서울 은평구에서 2014년 11월에 '전환마을 은평' 선언을 시작으로, 퍼머컬처학교, 생태보전시민모임 등 마을 텃밭, 에너지자립마을(태양광발전소), 건강한 음식, 지속가능한 의료, 지역의 문화 지킴 등 지역의 생태와 마을을 보다 건강하게 꾸러가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 단체와 모임들이 참여하여 진행, 전환마을부엌 '밥풀꽃', 생활제품을 만들기 위해 풀을 연구하는 '풀 학교', '발효학교' '예술학교' '은평토종씨앗지킴이운동' 등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추진

● 충남 홍성 홍동마을

-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위치, 자치와 생태의 공동체 지향
- 1958년 개교한 풀무학교가 홍동마을의 뿌리로, 친환경 유기농업 운동, 어린이집, 도서관, 지역신문, 지역화폐 (2014년 마을활력소에서 실패지폐 '잎' 발행) 등 혁신적 실험 주도
- 주민 주도 협동조합운동(풀무신평, 풀무생협 등) 추진
- 주요 단체: 갯골어린이집, 밝맑도서관, 마을활력소, 여성농업인센터, 동네마실방 들, 홍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100여 개 결사체 운영

● 시사점: 사람을 중심으로 한 거점 지원 필요, 생태원칙에 기반을 둔 퍼머컬처농부 지원, 지역 여성농업인센터확대

독일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마을·공동체 운동 사례

- **에코빌리지 운동(The German ecovillage movement):** 독일의 대표적인 마을·공동체 단위의 기후위기 대응 운동으로, 1984년에 설립한 니더작센 주 슈타이어베르그(Steyerberg)의 '레벤스가르텐(Lebensgarten)', 베를린 외곽에 위치한 ZEGG(1991년 설립) 등이 대표적임
- **에센의 여성 공동아파트 베기넨호프(Beginnenhof in Essen)**
 - 독일의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 관련 공동체나 주택 중에서 여성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 아파트 사례로, 1920년대 후반에 지어진 벽돌건물인 에센 남쪽 지역 세무서(Finanzamt Essen-Süd)가 2004년 이전하고 빈 건물을 중세시대 유럽의 여성 주거공동체인 '베기넨'(Beginnen)으로 개조하는 여성 공동주택 프로젝트로 추진됨
 - 거주 외 여러 공간에서 커뮤니티 모임이 조직되어 심리상담, 돌봄, 요가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출처: www.deutschlandfunkkultur.de

- **미래를 위해 활동하는 할머니(Omas for Future): 50+세대 활동**

- 오마스 그룹(Omas gegen Rechts): 2017년 11월에 오스트리아에서 '극우에 맞서는 할머니들(Omas gegen Rechts)' 모임 시작, 2018년 1월부터는 베를린, 함부르크, 브레멘과 보훔, 뮌헨 등 독일 전역에서 100개가 넘는 오마스 그룹 활성화. 50대에서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활동가로 구성되어 오스트리아와 독일에 총 3천여 명의 회원이 함께 활동 중임
- '미래를 위해 활동하는 할머니(Omas for Future)': 독일 라이프치히에 거주하는 코르둘라 바이만(Cordula Weimann, 64)이 50+세대에게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 위기에 맞서 싸우자고 제안하며 2019년에 설립하면서 시작된 활동은 독일을 중심으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의 80개 이상의 지역 그룹에서 수많은 활동가들이 자발적으로 활동 중임⁴⁾

4) 유사한 이름의 단체인 오마스 모임으로, 2017년 11월에 오스트리아에서 '극우에 맞서는 할머니들(Omas gegen Rechts, 이하 오마스)'의 모임이 시작, 2018년 1월부터는 베를린, 함부르크, 브레멘과 보훔, 뮌헨 등 독일 전역에서 100개가 넘는 오마스 그룹 활성화. 50대에서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활동가로 구성되어 오스트리아와 독일에 총 3천여 명의 회원이 함께 활동 중임

- 생물다양성, 지구 온난화, 자원부족 등 일상에서의 소비와 라이프스타일이 기후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보 및 구체적인 일상 팁 제공(현지에서 생산된 식품을 소비하는 체제로 전환하기, 친환경 전기 사용, 의류와 일상용품을 보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법 등), '기후 리본(Klimabänder)' 캠페인('거리에서 이산화탄소 줄이기' 등 기후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적은 다채로운 색상의 패브릭 소재 리본을 정해진 기한 동안 거리, 주요 기관 등에 게시), '미래를 위한 나무 심기(Zukunft pflanzen)' 캠페인(삼림 벌채, 가뭄 등으로 인한 결과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 전역의 지역 단체와 연계해 꾸준히 많은 나무를 심는 활동) 추진
- 시사점: 여성, 다양한 세대가 주축이 되어 여성이 안전하고 돌보는 마을·공동체, 고령여성들의 주축이 된 다양하고 성인지적인 기후위기 대응운동의 활성화

한국과 독일의 생태여성운동 사례를 통해 살펴본 성인지적인 기후위기 실천방안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성 주류화: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 보장, 기후위기 대응의 젠더관점이 교차하는 의제 발굴, 기후정의 운동의 다양성 확보
 - 기후위기 대응정책에 여성의 목소리 담기, 여성 대표성 높이기
 - 한국 사례) 유기농 다품종소량생산농의 생태농업, 토종농사 지속을 위한 대중교통망 지원, 파치 농산물 판로지원과 인식개선, 고령 1인가구 여성농민 농기계 지원, 여성어업인(해녀)의 현실을 반영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하수도처리장 처리, (관광을 위한 전시행정이 아닌)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사회기반 시설 구축,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배출 저감필터 설치 의무화,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제로웨이스트샵 맞춤형 지원, 생태원칙에 기반을 둔 퍼머컬처농부 지원, 지역 여성농업인센터확대 등
 - 독일 사례) 소비와 라이프스타일이 기후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 및 구체적인 일상 팁 제공, '기후 리본(Klimabänder)' 캠페인, '미래를 위한 나무 심기(Zukunft pflanzen)' 캠페인 등
- 여성이 주도하는 돌봄이 있는 마을·공동체: 여성이 안전하고 돌봄을 함께하는 주거지 및 공동체 설립, 확산
 - (여성이 주도하는) 미래 기후위기 사회에서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 한국 사례) 은평전환마을, 홍동마을 등
 - 독일 사례) 에센의 베기넨호프(Beginenhof in Essen), 베를린 프리드리히샤인의 여성 공동아파트(Müggelhof) 등